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협치 제도화 시동

2018 민·관합동정책워크숍 민·관 협치 공동협약서 서명 시민 참여·권익 향상 등 협력

광주시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협치 제도화에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광주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단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시민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광역시 협치 제도화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시와 시민단체협의회는 협약서에 따라 향후 시민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자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권익 향상과 지역갈등 해소, 광주 미래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행정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일회적 참여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시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의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상시적인 시민담론과 공공 속의 이워질 수 있도록 '광주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



이용섭 광주시장,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지난 28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에서 민·관 협치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민간 주도적인 '실무 부서'를 운영해 광주형 선진 자치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시와 시민단체협의회는 관련 부서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광주다운 거버넌스(협치)와 민주주의의 그리고 혁신'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협치의 의미, 협치의 전략과 목표, 협치의 효과,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워크숍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각 분야별 시민활동가들의 주도로 '자치분권시대 광주공동체 협치를 말한다'라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실을 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묻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원하는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부 행사에서는 공무원, 시민단체, 단체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 9개 분야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광주시의 실·국별 2019년 주요업무를 공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공직자 정책제안모임 연구성과 발표회

'중장년 독거가구 응급센터, 위생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쉼터협장' 광주시 동구가 지난 27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 공직자 정책제안모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다양한 구정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중장년 독거가구 응급센터 '더드림센터 운영' (팀명 더드림) ▲'위생매립장 부지를 루지 체험장으로' (팀명 일타쌍피) ▲동명동 일대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두 다 찾아DREAM' (팀명 갤럭시S9) 등이 신규공무원 모임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회 심사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단·국·소장, 전문가 심사와 100명의 판정단 '동구 두드림' 앱 현장투표로 진행됐으며 심사기준은 ▲시책화 가능성 ▲창의성 ▲논리성 ▲내용전달력 등이 포함됐다.

심사결과 동명동 일대 맛집·속박·명소 등 관광정보를 키오스크, 두드림 앱 등과 연계·구축하는 내용인 '모두 다 찾아DREAM'을 발표한 '갤럭시S9'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드림' 팀과 '일타쌍피' 팀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구 대촌동에 '작은 생태 도서관' 문 열어

광주시 남구 대촌동에 작은도서관이 문 열었다.

남구는 "고씨윤농놀이와 포총사 등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대촌동에서 29일 '대촌동 생태 작은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엔 문을 연 대촌동 생태 작은도서관은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조성됐다. 2000여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방문하는 청소년·주민들이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25석 규모의 좌석도 갖추고 있다.

정정지역인 대촌지역의 느낌을 살리

고, 작은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도서관 벽면을 고무나무와 덩굴식물인 아이비 등으로 장식했고, 열매나무 의자를 설치한 부분이 이채롭다.

대촌동 생태 작은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대촌동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이곳 도서관을 통해 인문학 및 과학,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대출 서비스를 비롯해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체험 '행복한 동행' 독거노인 30명 영화관람

광주복지재단의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문혜옥)은 지난 28일 독거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등 '행복한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초청한 독거노인들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직원들이2013년부터 진행해 온 독거노인 안부전화서비스인 '사랑해-효안부전화'대상자다. '행복한 동행'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문화유구 충족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준비한 행사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사랑해-효 안부전화'를 통해 직원 1인당 2명, 총 74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안부전화를 드리고 있으며,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복한 동행'에 참여한 독거노인들은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관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도 함께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20개 사업 추진

문인 청장 연합회 찾아 간담회 자립기반·지속 경영환경 논의

광주시 북구는 29일 "문인 북구청장이 28일 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를 찾아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경영환경 제공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등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해 5대 분야 20개

사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의무구매 공시제'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상 범위를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구매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연수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기관 협력, 해외조사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문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 경계를 통한 청년취업지원 홍보활동, 판매장터 운영, 기업 1:1 멘토링,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창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기업별로 특성화·전문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이어주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치·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은 취업난 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라며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서민들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지역 유통 계란 모두 식용 적합 市보건환경연 살충제 농약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계란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유통 계란 살충제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지역에서 유통되는 계란은 모두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5개 자치구와 협조해 광주지

역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및 마트 등에서 무작위로 수거한 60건의 계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살충제 33종과 항생제 17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8~9월 실시한 63건의 유통 계란 살충제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시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계란으로 인한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생산단계인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농약검사와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를 연 2회에서 6회로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봉사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8일 저소득층 및 독고노인 등 가정을 대상으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시공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시행 중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를 통해 9년간 영세민 44가구를 개·보수해줬다. <사진>

이날 복지사각지대 가정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배, 장판, 창문교체 등 노후 된 집안 곳곳을 보수하여 어르신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백운2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그동안 방문이 기울어져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몹시 불편했는데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모두 교체해줘서 불편함이 사라졌다"며 고마워했다.

노경수 도시공사 사장은 "겨울이 오기 전 이렇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지속되도록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